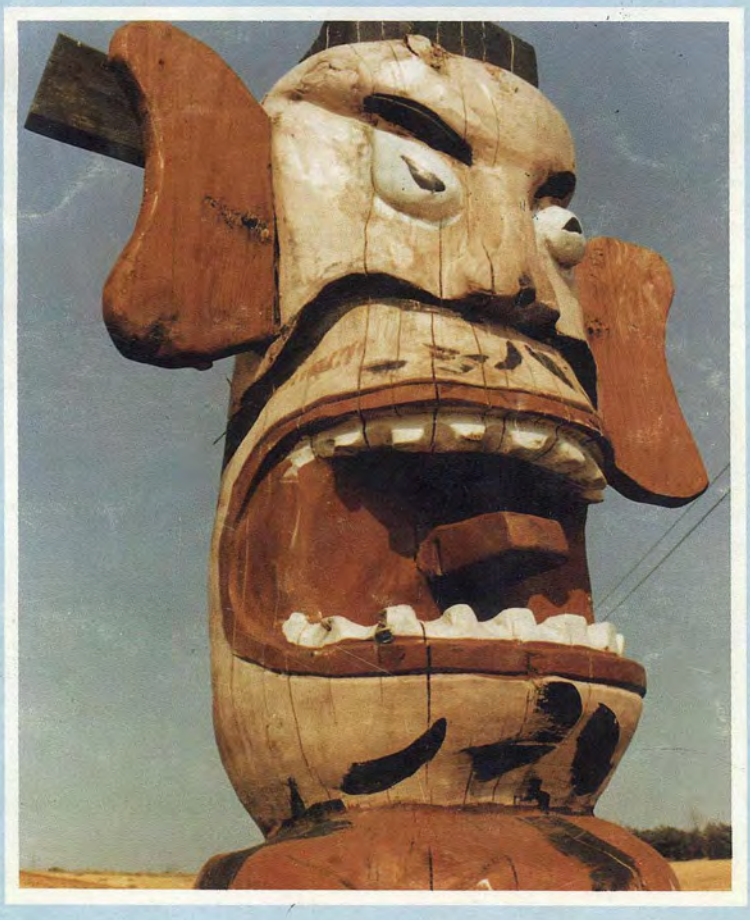
용인시민을 위한 문화소식지

1996년 6월
第 26 號

용인문화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제26호 표지는 김유겸 교장선생님의
서체로 발간합니다.

운강 김유겸(金裕兼)

용천초등학교 교장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경기도전 초대작가

용인시민을 위한 문화소식지

1996년 6월
第 26 號

용구문화

용인문화원

목 차

1. 머릿말 송 재 권……3
2. 용인애향가……5
3. 사진으로 본 문화원소식……7
4. 청춘예찬에서 (이규빈)……12
5. 용구마당……13
   ○ 원주대동 굿(유성관)……15
   ○ 용인명륜학교 일기(이종구)……19
   ○ 장명등 (이인영)……28
   ○ 논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최희민)……33
   ○ 서천리 두레 싸움(편집실)……37
   ○ 용인문화 예술의 현장에서(이상학)……42
   ○ 기행문……47
6. 학교탐방 남사중학교 (송장섭)……58
7. 용구문단……65
   ○ 시. 7월이 오면 (박상돈)……67
   ○ 시. 공 (박상돈)……68
   ○ 시 · 농부는 화가여 (홍사국)……69
   ○ 수필 · 오일장 (심연희)……70
   ○ 수필 · 새벽길을 가르며(이미숙)……73
   ○ 기행 ·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김정문)……76
8. 편집후기……82

머 릿 말

용인이 시로 승격 된지도 1백 일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 모두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우리 고장을 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려는 마음 가짐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서도 우리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히기 위하여 문화원의 조직을 강화 시켰으며 문화인,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현대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 몸 담고 있는 이사 위원, 회원, 임직원, 모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각오로서 새로운 용인을 준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숨은 노력의 일단으로서 우선 중단 되었던 용구문화의 간행이 재개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인, 또는 우리 시민 모두가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정보의 산실이 되도록 시민 모두의 폭 넓은 참여 있으시기를 기대 합니다.

또한 지방 자치와 함께 문화의 자치로 지방적인 독창성과 색채가 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의 전통을 알고 알리는 일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려 나가는 것으로서 가장 용인적인 인상을 심고, 그러한 문화형태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는 시민 여러분의 예지와 동참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광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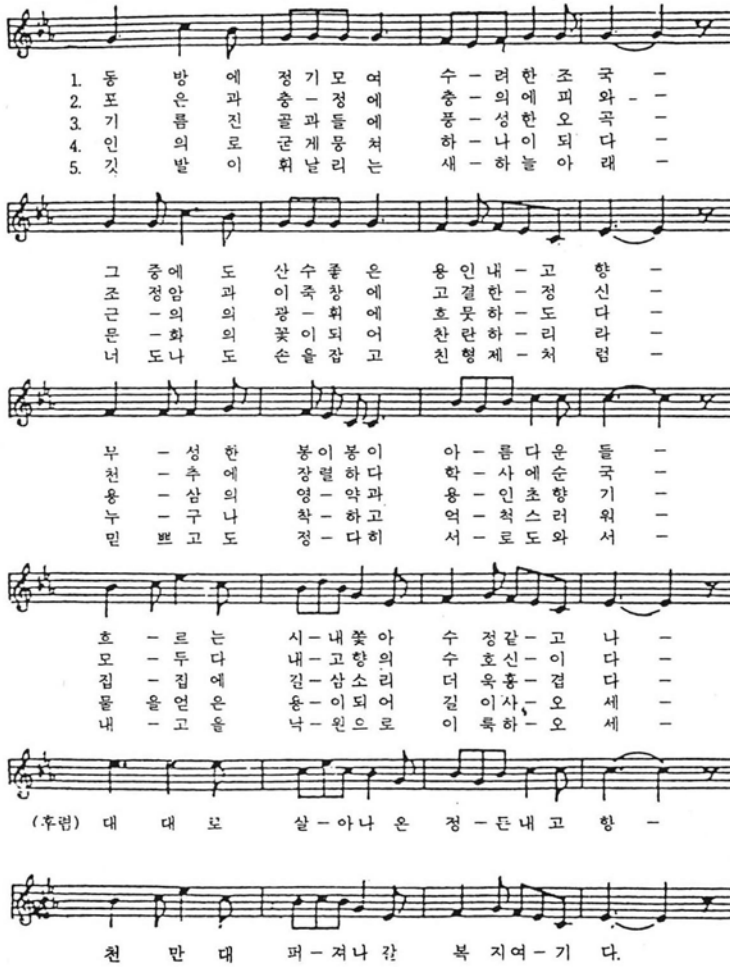
용인문화원장 송 재 권

여 백

용 인 애 향 가

柳寅相 창안
柳達永 작사
趙聖鎭 작곡

(민요조로)



여 백

사진으로 본 문화원 이모저모

민요 교실
매주 목요일 (10:20~12:00)

96 붓펜 교실
96.3.28일 개강, 96.1.1, 6.20일 제1기 수료

96 메이크업 교실
매주 수요일 (10:20~12:00)

96 꽃꽂이 교실

〈제17회〉
주부백일장
(독립기념관)

〈제 1 회〉
95
어머니 합창대회

〈제 1 회〉
'95 세시풍습 놀이
척사대회

〈제 14 회〉
95 미술 사생실기
대회(한국민속촌)

〈제 12 회〉
95 피아노경연대대회

청소년 문화강좌
95 예절교육

〈제 1 회〉
95 학생 민요 경창
대회 합창부문

〈제 2 회〉

95 제2회 용인
아가씨선발대회

청춘예찬 중에서

용문서예
출강강사

大山 李圭斌

석가는무엇을위하여설산에서고행을하였으며예수는무엇을
위하여황야에서방황하였으며공자는무엇을위하여천하를철
환하였는가그들은커다란이상곧만천하의대중을품에안고그
들에게밝은길을찾아주며그들을행복하고평화스러운곳으로
인도하겠다는커다란이상을품었기때문이다그러므로그들은
길지아니한목숨을사는가싶이살았으며그들의그림자는천고
에사라지지않는것이다

감순한하루를청춘예찬의한지절을 보다
김상이 저비

용 구 마 당

여 백

원주(元主) 대동굿

용인시 유방동
무속위원회 용인군지회장 유성관

대동굿이란 한 고을이 공동체가 되어 수호신을 받들고 종교적인 의식과 놀이를 행함으로써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용인은 소산으로 이루어진 석성산에 지접하여 고을마다 유교식 산제와 무속적인 굿이 많았으나 현재는 석성산 대동굿, 유방리 원주대동굿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유교식산제는 용인읍 운학리, 구성면 중·민제궁, 포곡면 삼계리·마성리 등에 잔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굿은 유방리의 원주대동굿이다.

이굿은 여러 대동굿과 같이 대동단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놀이문화를 중심으로한 줄다리기와 풍물굿이 으뜸이다. 놀이후엔 줄다리기 줄을 가지고 암수를 묶어서 보막이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막이란 경안천중 제일큰 보밑에 동리가 위치한 관계로 장마를 대비한 준비성과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재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원주 대동굿의 유래 ◈

옛날 민제궁에서 양반집 하녀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버림을 받아 걸식을 하던중 현재 유방리 초입에 당도하여 동지섣달 눈보라가 휘날리던 어느날 동사를 당하였다. 이에 불로 인한 한이 맺혀 어느날

인가부터 마을에 바가지만한 불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네 여러집 지붕에 붙어 불로 인해 재앙이 계속되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의논하여 근방무녀와 풍물을 동원하여 대동굿을 하였는데 이때 참나무를 가지고 대를 내려보니 화상을 입고 떠돌다 동사한 송각시의 넋이 나타나 수호신으로 받들어주면 불로 인한 재앙을 멎게 하고 고을을 지켜주겠다고 하여 주민들이 신으로 받들기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 후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편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때 왜인들에 의하여 신당이 파괴를 당하고 또 다시 재앙이 되풀이되는 시련끝에 수호신을 다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원주님을 잘 받들음으로 임금이 6·25때 유방리에서 약 30여명이 전장에 나갔는데 전사자는 말할것도 없고 단 한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 다 무사히 귀향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능력있는 신으로 인정을 받고 각처대동에서 부러워할 만큼 평화롭고 살기좋은 동네가 되었다고 한다.

특이할 점으로, 송각시 신은 남자를 무척 좋아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가 일을 주관하며 매듭을 지었다고 한다.

이 굿의 형태는 걸립인데 매년 10월 참나무대를 앞세워 당주가 맨앞에 서서 가가호호 걸립을 돌아 장만된 제물을 가지고 굿을 준비한다.

수일전부터 줄다리기 할 암수를 각각 만들어 놓고 굿이 있음을 알리어 각 대동의 풍물을 초대한다.

굿의 시작에 있어 각 대동에 알리어 초대를 하면 타동에서는 당

일 풍물을 치며 농기를 앞세워 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전고를 울리어 신호를 하되 원동 두레가 받아주지를 아니하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반전고 내지는 전고를 안받음으로 풍물싸움을 벌이던 양축 상쇠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원만히 되지 않을 때는 기뺏기 싸움도 벌어진다고 한다. 이럴때 원대동의 최고령자가

두레싸움을 중재하거나 타동두레가 깃발을 내리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합굿이 된다. 그리고 황토로 부정을 푼 후 당굿에 임한다.

도당 산신을 청배하여 신령의 서열대로 출원을 하고 가가호호 꽃반을 준비하여 출원 및 소지를 올린다.

그 후 당일의 주인인 원주님을 모시고 예단을 올린다.

다음 순서로는 군웅신을 받드는 과정이 되며 소 · 돼지를 잡아 소

는 각을 뜨고 돼지는 통으로 사슬받음을 한다.

이러한 과정끝에 무간이라 하여 신령의 의대를 입고 무녀가 아닌 일반인이 내림을 받아 노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형태로 대동굿이 유지되어 오던것이 유신시절 '미신타파'라는 미명하에 또 한번의 수난을 겪는다.

그 후로는 박양금무녀(73, 용인시 유방동)가 받들고 몇 남지 않은 노인들만 따르는 형편이 되어 대동굿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굿으로 쇄락한 상태이다.

박양금무녀에 의하면, 당에서 제를 올릴 때면 "남자들이 많이 참석을 안해서 서럽다"는 통영을 한다고 전한다.

우리전통문화의 하나로서 용인지역에 몇 남지 않은 '원주 대동굿'이 이제 그 명맥만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음에 우리 향도문화인 모두의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같은 향토문화를 문화제로 지정 · 보존함으로써 대동단결의 민족혼을 후세에 전함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龍仁明倫學校日記

李 容 鍵 作
용인상고 이종구

‡ 글을 실으며 ‡

이 일기는 한국학보에 실린 원문을 화성군 서봉서원 전교인 송암 이한우 선생이 번역하여 본지에 실리게 된것이다.

명륜학교는 현재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에 위치한 용인향교에서 젊은 인재들을 가르 치던 학교로서 사진상에는 이학교 1회 졸업이 1914년에 거행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읽기로 보아서 1906년 당시에 학교가 있었음을 알수있다.

이 글은 제목은 「명륜학교 일기」라 기록 되어 있으나 그내용은 지금 학교에서 쓰는 교무일지, 또는 학교 일 전반에 걸친 일기가 아니다 한 개인 이용건씨가 학교에서 있었던일 주변에 있었던일 학생들의 생활 등을 작자가 본 그대로 적어놓은 글이다.

이 글 내용에서 구한말 일본이 우리를 강정하려고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킬 때(고종 황제 강제 퇴위사건, 정미 7조약 치욕적 체결사건, 최면암의 절사사건) 우리민족이 이에 대응하는 국채보상운동 여러가지 항일 운동에 대하여 지방민의 감정, 대응태도, 지방의 분

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아쉬운것은 필자로 추정되는 이용건, 이글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관하여 좀 더 알수 만 있다면 당시 우리 용인 지방의 살아 있는 사회상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이글을 읽는 독자분들께서 이분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리라 하는 기대감속에 이 글을 용구문화에 싣고있다.

일기 뒷면에는 여러편이 가사(歌詞)가 실려 있으며 여기에 한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龍仁明倫學校 日記

大韓光武十一年丁未二月 日始

二月一日:(맑음)선생님의 출근 하였음으로 멀고 가까운곳에 학생들이 모두와서 강의를 들었음.

二日:정덕용 친구가 학교에 왔음

三日:맑음

四日:비와 눈이 많이 왔는데 친구 이길선이 집에 왔음

五日:이날은 향교 재향날 이므로 모든 임원과 함께 제향에 참석 하였음.

六日:종일 무사하였음

七日:친구 이철수와 함께 양성 승원에 갔음.

八日:수원 능동에 사는 김복현과 그의 4촌이 학교에 들어 왔음.

九日:종일 비가오고 풀과 나무가 싹틀 기세를 보이며 새가 새끼칠 둥지를 정돈할 시기이다.

十日:흐리고 일기가 고르지 못하였다.

十一日:나라에서 채무 보상통고가 와서 학생들이 캭출키로 하였다.

十二日:본교 학생들에게 할당금을 통지하고 군내의 송시순이

통지서를 가지고 서쪽 이현 독정리의 이의관댁에 가니 죽전에 사는 김봉필 선생과 박주사 상익씨 역시 일원을 내고 학생 5명 각각 10전씩을 내었으며 또 현암 최영보 형제가 합하여 60전을 내었다. 저물게 손동 이청송씨 댁에가서 주인과 담화하며 잠을 잤다.

十三日:아침후에 동막골 남오위장 창원씨댁, 월촌 윤생원 집에가서 태정리 안종우, 안형수, 이석사 세분이 통문을 보고 서로의논하여 각각 출연금 10전씩을 받고 또 곡현 이동을 지나 봉동에가서 윤씨 댁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동리 이참봉 집에가서 역시 영윤 철형으로 부터 각기 30전씩을 받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출해서 10전씩을 받았다.

또 성복동 이재오집 선생인 이참봉 원도씨 역시 출의금 10원을 내면서 이것은 참으로 의로운 일이라 하며 칭찬을 해주었다.

그리고 정평에 가서 박씨집 학생들에게 출현금을 받고저 하였으나 선생이 부재중이라 하여 권고만 하고 돌아 왔다.

十四日:일찍 아침식사후에 송시순과 함께 학교에와서 친구 김복현, 김홍배, 이길선이 조금씩 출의금을 내었다.

十五日:이날은 조정암 제향일인 고로 학생들과 함께 심곡서원에서 제향 하였음.

十六日:심곡서원에서 강의가 있기로 되어있어 제생모두 참가하기로 되었으나 이철규 김홍배는 몸이 아파 불참하고

혼자 참강 하였음.

심곡서원:수지면 상현리에 있는 서원으로 조광조선생 위패를 모신 서원

十七日:현암 최영보씨가 오셔서 특의금 35냥을 가지고와서 이야기 하고 돌아간 후에 친구 이철의와 이야기한 후 선생님과 함께 어두어서 갔음.

十八日:눈·비가 석여오다 잠시 그치기에 친구 이철혁과 입교하여 놀다 갔음.

十九日:진사어른이 백미 한짝을 싫고 와서 자기 아들이 병으로 인하여 학교는 못오나 좋은일에 써달라고 하였음.

二十日:친구 김복현의 아버지께서 쌀과 의복을 가지고 오셨음.

二十一日:이날은 포곡 소운동 사숙(서당)학도 박승연과 학동들이 의금 150양을 갇고 입교하였음. 본교에 광주사는 김참봉이 와서 선생님과 이야기 하고 갔음.

二十二日:조반후에 마곡사는 윤선생이 오셔서 선생님과 이야기 하고 간후에 친구 정우용이 왔고, 능곡에 이겸승이 서찰을 가지고 왔으며 본교친구 이의선이 경성에서 왔다. 하마비에 사는 방동복이 책을떼어 책거리로 송편을 가지고 와서 교생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二十三日:동편 백현서당에서 의금 30냥을 보내주어 수령하고 윤씨. 경씨 집 아이를 입학토록 송시순이 아이들 부

친에게 권하여 뜻이 있음을 알았음.

二十四日:이날은 청명절이라 날이 온화한데 선생님이 매씨의 사망 통고를 받고 본댁에 가셨으므로 교중 제생과 교장이 문후차 능동 이판서 집에 갔음.

二十五日:이날은 한식날이라 친구 정덕용 이철규의 재종 철수가 나왔고 또 친구 김복현, 복현의 종제 정현이 모두 집에 모였음 "봄바람이 바야흐로 만물에 골고루 흩어지니 기쁘고 기쁘도다"하며 즐거워 했다.

二十六日:성재어른께서 매씨 참경을 보러 오신고로 친구 김홍배, 최병균이 위문차 갈천에 갔다 등교하였음.

二十七日:선생님이 본댁에서 올라 오셨으므로 친구 송시순과 같이가서 뵈었다. 저녁때는 보슬비가 조금씩왔다.

二十八日:성제어른께서 말을달려 학교에 오셨다.

二十九日:친구 정우용과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

三十日:선생님이 서원석씨 집에 성재어른을 방문차 가시었다.

三月一日:큰비가 온종일 밤까지와 부득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三月二日:덕성동사는 하지홍이 글을 배우려 이부자리와 양식을 가지고 왔다. 남양사는 이해암 어른이 왕림하시여 선생님과 향사례를 하시였고 선생님의 매씨 고진씨의 병사하심을 위로 하였음.

三月三日:이날은 향사례를 행하고 군자단 회의가 벌어져 술과

안주를 장만하고 시회와 풍악을 읊으며 종일 즐기고 다른날 강회를 하기로 하였다.

(☆ 향사례:시골에서 한량이 모여 편을 갈라 활쏘기를 하는것, 보통 주향과 함께함)

四日:성재어른이 본댁으로 가시기전 오후에 직동사시는 오연호씨외 여러분들이 거문고를 타시며 이별곡을 하시고 선생님이 성학을 말하시며 술을마시고 파하였다. 그리고 동막곡 이문백씨와 학교를 두루보시고 잠시 이야기 하다가 가시었다.

(☆ 성학:성인이 가르친 학문, 특히 유학을 일컬음)

五日:종일 아무일없이 다만 선생님과 모든 학생이 작문공부를 하였다.

六日:김지덕이 출교하고 하지홍 부친이 지나가는 길에 학교 왔다 가시었다.

七日:선생님이 이기상의 집에가서 신촌사는 참봉 이익태씨와 함께오셨다.

八日:친구 맹이술과 그의 형과같이 집에가서 농사일을 하였다.

九日:성재어른이 말을타고 오시어 선생님도 말을타고 지곡 이철규 부친과 함께 잠시 담화하고 필방에 가서 먹을 사가지고 가시었음.

十日:이철수부친이 오셔서 선생님께 청하시기를 마곡사는 윤

석민씨와 함께 일기도 화창하니 술과 안주,떡을 준비하여 성재어른과 함께 산이나 시내가에 가자고 말씀 하셨다. 이야기가 끝나자 이기상집에 술과 안주가 있다하여 후하게 대접 받고 공주사는 김일충씨가 제자한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유숙하고 상경 하셨다.

三月十一日:성재어른이 오셨는데 참봉 박종재씨가 와서 선생님을 뵙고 갔음.

三月十二日:친구 정우용이 왔고 친구 맹치정도 잠시 왔다 갔다.

三月十三日:성재어른이 입교하시였음.

三月十四日: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큰비가 오고 개인후에 더욱 맑음으로 햇빛이 기이했다.

三月十五日:이날은 글 배우는 날이므로 곡동에 모두모여 공부하고 오후에 김복현 하지홍 두친구가 각각 이집을 나아 갔다.

三月十六日:친구 이길선이 와있었고 오후에 성재 어른이 오시어 제생과 더부러 기산정에 올라가 삼월의 봄풍경을 시로 읊으며 술도마시며 즐기다가 어두울때 모두 헤어졌다.

三月十七日:심곡사는 안주사 어른이 오시어 담화하시고 어떤 허씨노인이 오시었다.

孝 親 歌

誠 齊 所 作

어화우리 동포들아 효친한번 하여보세
父子有親 일너씨니 〃 〃
父母업시 어셔ㄴ나 〃 〃
愛之育之 하셨시니 〃 〃
萬古聖人 大舞됨도 孝아니고 무엇인가
孔子같은 大成됨도 孝經으로 전수하니
至德要道 이않인가 孝親한번 하여보세
그만못한 까마귀도 反哺報恩 하엇시니
孝親한번 하옵시다. 어화우리 學校덜라
酒掃應對 禮을잡아 留定辰省 하여보세
日周三性 孝아니니 承順色養 하옵시다
身體髮膚 傷치마오 立身揚名 죠흘시고
推以事實禽 하계대면 以顯父母 그아닌가
〃 禽兎하세 〃 다할손가
庸天因地 하여설낭 養親한번 하여보세
恨을마오 恨을마오 매水之養 恨을마오

事親色養 하던이는 隱居蓄生 그아닌가
예전사람 一日養을 三公으로 不優헛소
世上사람 無道하야 不順辱親 太일네
搏變飮酒 業을삼아 憤其四肢 하엿시니
우리同胞 警戒하야 孝親ㅎ번 하여보세
어화 우리學徒더라 以孝事必 하여보세

장 명 등 (長明燈)

이 인 영

분묘앞에 세우는 장명등은 일명 석등룡(石燈龍) 또는 석등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기능적인 의미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이다. 조선시대의 묘제(墓制)로서는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부장하는 기명(器皿)의 개수, 광중의 넓이와 깊이, 묘의 경역등이 엄격히 제한 되었고 문무관석(文武官石)의 설치도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되었다.

경국대전의 예전(禮典) 편을 보면 "왕비의 부모, 빈, 귀인, 대군, 왕자, 군(君) 및 부인, 공주, 옹주, 의빈과 종친 2품이상 및 공신(功臣)은 예장(禮葬)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묘전에 설치 되어있는 장명등은 정1품 재상, 또는 공신이나 왕족등 예장을 받은 경우에 한정 하였으므로 묘전석(墓前石)의 크기나 종류는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용인 관내에서 예장, 축조된 분묘로서 가장 오래 된 것은 15세기 초기의 것으로, 박포의 난을 평정하여 정사좌명1등공신(定社佐命一等功臣)이며 이태조의 맏딸인 경신공주(慶信公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된 상당부원군(上堂府院君) 이애(李薆)의 분묘를 꼽을 수 있다. 이 분묘는 방형의 호석이 있고 분묘 앞에 장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무관석 등 조선 초기의 석조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장명등은 몸체와 개석으로 구분되는 2매석으로 하단에는 방형의 기단부를 두고 정방형의 간주 위에 화함석(火含石)을 조각 하였고 사모형 형태의 옥개석 하단에 화함석과 방형의 화창(火窓)을 투조하여 엇갈리는 방향으로 설치 하였다. 정면(頂面)에는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를 얹었으며, 높이는 130㎝ 정도로서 화함석을 포함한 옥개석의 높넓이는 34㎝ 정도가 된다. 이로써 이 분묘는 공신이자 공주라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 예장된 분묘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본고 에서는 분묘 앞에 세우는 이러한 장명등을 위주로 조성 축조의 시대성과 대별하여 하나의 조형물(造形物)로서 기법과 변천 발전하는 과정을 구감 해 보고자 한다.

15세기 전반에 설치된 상당부원군 이애 분묘 앞의 장명등 보다 15세기 후반에 설치된 장명등(사진2)은 사진1의 형태를 유존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2의 장명등은 용인시 역북동 구성마을에 있는 것으로 15세기 중반인 1468년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반역 음모를 꾀하였다 하여 이들을 처단 하는데 공을 세운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이복(李復)의 분묘에 있는 것으로 하대석과 화함석 중간의 간주는 매우 짧아 졌으나 몸체 상하의 구성비가 동일한 점은 사진 1의 경우와 비슷하나 대석의 상단과 화함석의 하단에 각기 세줄씩의 조선(條線)이 나타나며 화창(火窓)도 한쪽 방향으로 뚫려있는 점이 다르다. 특히 변화가 생긴것은

사모지붕의 추녀가 몸체 밖으로 드리워졌고 처마선이 반전되어 있으며 내림마루 형태가 합각부분에 드러워져 있고 정상 부분에는 보주가 얹혀져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불교적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주는 후기의 장명등에도 나타난다.

조선시대 국운 융성기라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 즉 18세기 초에 설치된 모현면 오산리 오명항 장군 분묘 앞의 장명등은 조형미가 완성되어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다. (사진3)
오명항 장군은 이인좌 난을 평정하여 분무1등공신(奮武一等功臣)으로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피봉 되었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인물이다. 그는 1728년, 18세기 초에 이곳에 예장 되었는데 방형의 하대석 위로 운족(雲足)을 두고 각 우(隅)에 동자주(童子柱)와 안상(眼象)을 조식한 간석 사면에 초엽(草葉)을 가득히 양각한 상대(上台)와 사방으로 화창을 뚫은 화함석을 중적한 모양으로 지대석으로 부터 옥개 하단 까지는 일매석으로 조각되어 있다. 특히 하단의 운족(雲足)은 역경사를 이루고 있어 곡선과 굴곡에서 생동감이 넘치며, 옥개의 처마선 역시 반전된 모양은 석재의 둔중감을 말끔히 덜어 내고 있으며 정상에는 우동(隅棟)을 얹어 곡선과 직선을 결구(結構)하고 정면에 보주를 얹어 대미를 장식한다.

같은 18세기 이지만 후기에 속하는 1796년경 조성된 구성면 청덕리 남원윤씨 조상의 묘에 설치된 장명등(사진4)은 관내에 있는 사대부가 분묘의 조형물로서 대미를 장식 하는데

18세기 초기 오명항 장군 묘소의 장명등 형식에서 좀더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명등은 용은군(龍恩君) 윤 염(尹琰)의 분묘 앞에 세운 것으로 이 역시 군호(君號)를 받은 사대부가의 분묘로서 사회적 신분을 입증하는 표상이 된다. 아래로 부터 살펴보면 본래 지하에 매몰 되었어야 할 하대석 까지 하박석 위로 노출되어 전신의 모양, 크기 까지 들어내고 있는데 하대석 위로 훤칠한 운족은 모접이 하였고 간석은 각 우(隅)에 동자주를 세우고 유운문을 양각한것, 화함석 화창을 외방내원(外方內圓)의 형태로 뚫은것 등의 형식은 전기와 비슷하나 상대석 하연에 앙련을 두었고 입방체와 같은 크기에 유운문을 가득 채운것 그리고 옥개석의 형태에서 부연을 두었고 다각지붕 위에 얹은 절병통과 그위로 중적된 보주(寶珠) 형태는 전기에서 보다 새로운 변화가 가미 되어 있다. 이는 장명등이라는 묘전석의 기능 이상의 작품으로서 이들의 석조물도 훌륭한 문화재적 유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며 최소한 향토유적 이나마 지정 보존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크기는 높이가 276㎝에 이르고 상대석은 가로, 세로 75㎝, 높이 80㎝이며 개석의 크기는 가로, 세로 75㎝에 보주 처마에서 보주까지의 높이는 80㎝ 정도이다.

이 밖에도 예장된 분묘로서 몇 례가 더 있으나 장명등이 있는 것은 기흥읍 공세리 소재 평도공 최유경 분묘의 예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시야가 이런곳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몇 례나마 보고 느낀 자료를 수록해 두고자 한다.

사진1. 이애 및 경신공주 분묘 장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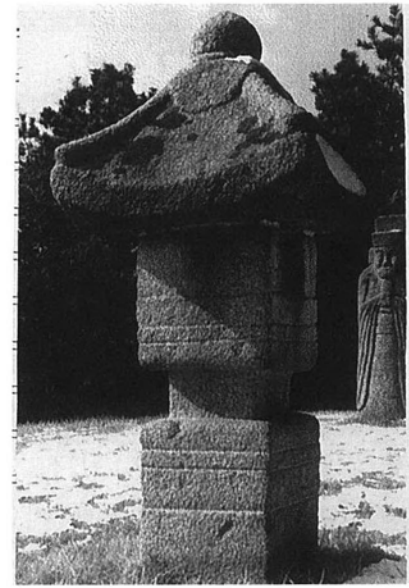


사진2. 익대공신 이복 분묘 장명등

 사진3. 오명항 장군 분묘 장명등

사진4. 용은군. 윤염 분묘 장명등

論語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최 희 면

1. 청렴하라, 출세한다.

子曰, 苟正其身矣 於從政乎, 可有不能正其身 如正人 何(자왈, 구정기신의 어종정호, 가유불능기신 여정인 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진실로 그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 몸가짐을 바르게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子路篇〉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남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옛부터 청렴을 으뜸으로 꼽았다. 청렴하면 그 몸가짐이 깨끗한 것이고, 탐욕하면 그 몸가짐이 지저분한 것이 된다. 사실 정치가나 행정관리가 자기 몸가짐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탐욕에서 비롯된다. 물욕에 젖게 되면 저절로 몸가짐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청백리(淸白吏)를 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청백리중 손꼽힐 만한 분중에 세종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柳寬)이란 분이 있다. 그의 일화중 비오는 날 부인과의 대화가 있다. 그는 홍인문밖 초가에 살았는데 장마가 계속되어 천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샜다. 여러곳에서 동시에 새는지라 부인과 둘이 우

산을 받쳐들고 방안에 앉았는데 부인에게 말했다.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자 부인이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반드시 또다른 대비책이 있지요」 그 말을 듣자 유관이 빙그레 웃었다.
연산군때의 정붕(鄭鵬) 또한 청렴하고, 꼿꼿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다가 귀양을 갔다가 영의정 성희안(成希顔)의 권유로 청송부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임 후 성희안이 편지를 보내 「잣과 꿀을 보내달라」고 했다. 정붕은 바로 답장을 보내 「잣은 높은 산마루에 있고, 꿀은 인간 벌통속에 있거늘 태수가 무슨 수로 얻어낼 수 있겠는가」 했다. 성희안은 이를 보고 부끄러워 사과했다.

「물욕에 끌리지 말라」, 「몸가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특수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정치가도, 공무원도, 일반회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될 말이다. 「돈에 깨끗하다」 이 말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탄탄대로다. 평생 주위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다.

2.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라……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기욕이입인 기욕달이달인)〈雍也篇〉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하게 한다」

사람이란 자칫하면 이기적이 되기 쉽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일쑤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지어 살게 마련이며, 항상 「나」와 「너」가 어울려서 삶을 영위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며 국가를 발전시켜 나간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남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앉고 싶어하는 과장, 부장자리는 남도 하고 싶어하리란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니 내가 과장이 되었으면 남에게도 계장, 과장이 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러한 여건이 조성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자라면 충고도 해주고 부축해 일으켜 주기도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다.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淵篇〉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사회의 구성원은 각자가 제 마음에 비춰 남을 헤아리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윗 사람이라고 해서 궂은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킨다든지 또는 귀찮고 공적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남에게 미루고 서로 기피한다면 직장이고 나라고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존경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부하 사랑하기를 내몸같이 하는 분이고 남에게도 또한 그러했다. 한번은 장군의 휘하 장수인 송여종(宋汝悰)이 명나라 수군과 공동작전으로 왜군과 싸우던 중 송여종의 부대가 왜선 6척과 왜군의 머리 70개를 베어온 전과를 세웠는데 명나라 수군은 빈손으로 돌아 온 일이 있었다. 이때 이순신장군은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陣璘)과 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진

린은 크게 노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명나라 조정에서 이를 알면 책임추궁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순진장군이 말하기를 「장군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오셔서 함께 싸우니 우리군사의 승리가 곧 명나라군사의 승리가 아니겠소. 이번 전과를 모두 장군께 드릴 터이니 명나라에 품달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진린은 「장군께서 동국(東國)의 명장이라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이토록 도량이 넓으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사하는 것이었다.이순신장군의 이런 태도에 흠복이 된 진린은 이후에도 온갖 대소사를 이순신 장군에게 의논한 뒤 처리했고 심지어 명나라 수군을 치죄(治罪)하는 권한마져 맡겼다. 결국 나에게서 나간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서천리의 두레싸움

1. 총설

이 놀이는 수백년전부터 성행해 내려오다가 일제시대와 6.25사변을 거치면서 때때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50여년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일손이 모자라는 농사일을 하면서 협동과 단합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다가 그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중단상태인 것을 다시 발굴 재현하려 한다.

이 두레싸움은 들일을 하려고 아침일찍부터 일터로 나간 서그네 마을과 용숫골 마을 두레가 서로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해와 의견차이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상대방 두레의 기장목을 뽑음으로써 승패를 가리는 민속놀이의 일종이다. 특히 싸움중 손해본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형제의 의를 맺고 농요를 서로 부르며 성황당에 고사하고 합굿을 치며 한마당 놀이판을 벌여 두마을이 화합 단결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놀이과정

이 민속놀이는 고사, 두레싸움, 농요 및 새참, 합굿, 형제에 예유, 끝마당 등 다섯(6)마당으로 구성된다.

3. 놀이내용

- 용기(龍旗)를 온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꽂아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징이나 북을 울린다.
- 이는 두레가 나간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다.
- 두레가 나가기전 도랭이등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술을 부어 그날의 안녕을 간단히 빌며 공손히 절을하고 고씨네(고시래)를 한다.
- 서그내 두레와 용숫골 두레는 모를 심어서 시퍼렇게 자란 들판으로 김을 매고 잡초를 훔치러 들로 나간다.
- 서그내 두레는 꾸민지도 오래되고 그 구성인원도 용숫골 두레보다 훨씬 앞선다.
- 서그내 두레패가 들판으로 일하러 농악을 치며 나가다 저멀리 나오는 용숫골 두레와 조우한다.
- 서그내 두레는 용숫골 드레를 보고 점고를 울린다.
- 용숫골 두레는 서그네 두레의 점고소리를 듣고도 반점고로 답하거나 아예 무시한다. 이는 서그네 두레의 연륜과 그 구성인원에 대해 잘 모르므로 무시한다는 태도이다.
- 이에 기분이 상한 서그내 두레에서는 일꾼들중 장정 2~3명정도를 용숫골 두레패에 보내 섭섭함과 아울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용숫골 두레패들은 서그내 두레패의 사과요구를 묵살하고 더 노골적으로 욕설과 함께 적대감을 표시하며 찾아온 장정들에게 모

욕과 함께 싸움을 건다.

- 이에 용숫골 두레를 찾아간 건장한 일꾼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바쁜일을 못해 품을 미는 한이 있더라고 이번 기회에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고 의견을 좌상에서 고한다.
- 좌상은 서그네 두레패 구성 일꾼들에게 의견을 하문한다.
- 구성일꾼들은 돌아온 장정들의 의견대로 이번 기회에 혼을 내서 버릇을 단단히 가르치자고 의견일치를 본다.
- 서그내 두레패들은 농악을 쳐 힘을 과시하고 도랭이와 연장들을 한곳에 내려놓고 일꾼들 일부는 농기위주를 둘러싼다.
- 이에 상대방 용숫골 두레패도 자기들이 싸움을 걸고 각오한 바가 있어 서그내 두레패와 똑같은 행동을 해 방어태세와 공격태세를 갖춘다.
- 서그내 두레패중 30여명 이상의 장정들이 용숫골 두레에 기를 향해 돌진한다.
- 상대방 두레패의 장정들도 같은 행동으로 돌진하여 양 두레패는 중간지점에서 대결하며 힘겨뤄 싸우다가 일시 물러난다.
- 이에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 쌍방은 작전을 숙의하고 서그네 두레패는 10여명 인원을 더 보강하여 재빨리 상대방 두레패에 보다 접근하여 재대결한다.
- 이에 승부가 나지 않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서그내 두레패 장정들은 이번엔 인원을 훨씬 더 보강하여 3번째 돌진하여 밀고 밀리다가 용숫골 두레패 기장대에 날쌔고 힘센 젊은 장정들이

기어 올라가 기장목을 뽑아 서그네 두레패 일꾼들에게 던져서 건네준다.

- 기장목을 받은 서그내 두레패 장정들은 자기네편 일꾼들의 호위를 받으면 서그네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좌상에게 올린다.
- 기장목을 빼앗기고 싸움에 패한 용숫골 두레패 일꾼들은 땅위행사를 마친 쌍방 두레패는 합굿을 치며 아이들 무동을 태우고 홍을 돋구며 주위를 돈다.
- 다른 일꾼들은 동네아낙들이 장만해 온 막걸리와 안주를 조롱바가지로 퍼먹으며 각자의 장기자랑을 한다.
- 합굿을 치며 놀이판 한마당이 끝나면 내려놓은 도랭이와 연장을 챙기고 용숫골 두레패는 서그내 구레패가 지나가는 길을 기폭으로 맨땅을 쓸어주고 일꾼들은 양쪽으로 읍하고 도열하여 아우의 예를 표하고 서그네 두레패가 다 지나갈때까지 배웅한다.
- 서그내 두레패와 용숫골 두레패는 헤어져 자기들 마을에 당도해 한바탕 홍을 돋은 다음 끝을 낸다.

4. 맺음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만부득이 상대방과 다툼이나 의견충돌이 있어도 자기의 약함과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 승자는 아량을 베풀고 패자는 승복한다는 기질이 대대손손 내려오고 상대방에게 고의던 아니던 피해가 있으면 꼭 손해를 변상해주며 윗어른을 공경하는

장유유서의 정신이 투철하고 더더욱 돈독한 우의로 협동단결하여 이웃사랑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5천년 유구한 역사를 단일민족으로 이어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편집실〉

龍仁文化藝術의 現場에서

西洋畵家 李 相 鶴
(龍仁美術人會 前 會長)

예술이 人間生活과 일체감을 형성 하는데 있어서의 그 역활은 귀중한 자양적 요소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인들은 스스로 창작한 작품을 통한 상징성의 의미를 상호 교환하여 사회적 교감의 성과를 획득 하기 위한 행위의 개인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끊임없이 실행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기타 사회 구성원 으로서의 복합적 전체로서 문화 요소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맥락에서 문화를 문화복합 이라고도 말 하며, 이와 같은 총체성의 문화가 피폐 해 졌을 때 인간사회는 삭막 해 져서 허무와 심상의 불안정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예술 개체의 문화가 각기 독특한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그 특수성은 시대마다 변화(변형)를 초래하게되고 그것은 주로 창조적 개인에 의해 수행되며 그 초래를 입는것은 개인은 물론 집단적 무의식체 와도 무관한것은 아닌 것이며, 예술과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접목된 의미의 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문학등 그 유형이나 양식은 각기 독자성을 띤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표현된 상징물은 모두 예술품 이며 곧 이것들은 예술가들의 예술적

창조 작업의 산물임을 인식 해야 함은 물론 예술이 곧 문화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예술에 대한 인식의 도를 한 층 증가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예술의 기능은 사회적인 맥락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술작품은 상징 그 자체로의 의미를 전달 함으로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을 망라하여 "느낌"을 낳게 한다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것이다. 느낌은 곧 이해를 낳게 되고 창조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업, 과학의 발전 내지는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특히 인간답게 사는 全人的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예술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예술인들의 고뇌에 찬 몸부림은 국민소득 만불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과 용인시 승격의 기회와 발맞춰 용인의 황폐한(?)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발한 조성작업을 개시 하려는 노력자들의 분발의 모습에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용인의 문화예술 현장의 피폐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책임은 없는 것이다. 그 현장인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다. 사명과 책임감을 절실히 따갑게 느끼는 장본인들 자신들이 책임의 짐을 짊어 질 수 밖에 없다. 스스로들의 설계로 조감도를 작성하고 그 현장에 내 고장의 독특한 정신적 유산을 기반으로한 신 이상형의 새 용인문화 창출의 계기로 삼을 조성물을 새우기 위한 과감한 發現의 짓거리를 벌여서 끼리들만이 아닌

제3자간 교감의 발흥을 불러 일르켜야 할 것이다. 이미 비워둔지 오랜 공한지의 현장을 말끔히 단장하고 모두가 그 한마당에서 흥청거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을 맞이한 용인미술인회는 7년여의 준비 과정의 긴 여정을 걸어 왔다. 이제부터 우리들 만의 장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 새롭게 태어 날것을 결의 하였다.

(覺一女人의座像) 530 C/M×455 C/M 油畵 10號 1995年 四月 十七日~二十二日 日本東京 銀座 六義園畵廊個人展 作品

一그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중단하고, 도리어 사물의 이미지를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끄집어내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세계, 어쩌면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속에서 경험했던 그 內密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되찾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에서 대상을 條件反射式으로 대응하는 인식에서 부터 자기 나름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사물이 한층 더 極寫實的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관습적인 視覺對應에서 부터의 해방이고, 동시에 혁명이기도 하다. 李相鶴의 독창적인 그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인식론에 있어서 확실한 코페르닉스적인 전환의 드라마가 있어야 했다. 李相鶴의 고백대로 그는 그가 발견한 신비스런 환상적인 사물을 극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급기야 초현실주의 회화의 세계와 만나게 된다.

同德女大教授
美術評論家 朴容淑

용인미술인회 새임원 구성

자문위원 이강수
(태성중 교감 서양화)

자문위원 이상학
(전 회장 서양화)

고　　문 심익규
(유한공전교수 전회장 서양화)

회　　장 서해창
(태성고 교사 서양화)

부 회 장 조남준
(사진작가)

감　　사 진철문(조각가)

총　　무 오성만
(용동중 교사 한국화)

외 회원 25명

아시아 문명의 발상지 중국을 다녀와서

기행문

院長 宋 在 權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중국의 일반제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흔히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정식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수도는 북경이고, 면적은 약 960만 ㎢로써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이다. 남북으로는 남사군도부터 흑룡강까지 5,500㎞이고, 동서로는 파미르고원부터 우수리강까지 5,500㎞이다. 인구는 11억 6천만명으로 지구 전체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연평균 인구증가율 1.2%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민족구성은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漢民族이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가 55개의 소수민족이고, 조선족은 196만여명으로 소수민족의 2.6%를 차지한다. 언어는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방언 및 소수민족 언어도 존재하며 국정공휴일은 신정(1.1), 춘절(음 1.1~3), 노동절(5.1), 국경절(10.1~2) 등이다. 이렇게 개괄적인 기초지식을 갖고 여정에 들어갔다.

말로만 듣던 중국 상해시를 향해 중국민항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떠나는 순간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각각 안내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손이, 벌써 중국대륙까지 뻗고 있음을 씁쓸하게 받아 들여

야 했다.

상해시에 도착하여 임시정부청사로 이동하는 길에 스쳐지나는 승용차나 버스등은 대부분 일본 도요다사 것으로 이미 자동차시장을 점유한 듯 하였으며 가끔 가뭄에 콩나듯 우리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도 있음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교통질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시내 건물들은 관리하지 않은 듯 관청이나 개인주택 할 것 없이 우중충하고 볼품없어 보였다.

상해 임시정부청사에는 임정시절에 국무원으로 활동하신 안창호, 박은식 선생님 등이 여러 애국지사들의 명단이 사무실 침실등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었다. 김구 선생님의 좌상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시설이 낙후된 관광버스를 타고 남경동로 황포공원에 도착하여 보니 공원은 전혀 정원수가 가꾸어져 있지 않았으며 여기저기서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몰려 다니며 구걸하는 전경을 보고 지난 6 · 25동란시 미군들에게 껌과 쵸코렛을 달라고 쫓아 다니던 한국어린이들을 회상해 보았다.

우리 일행은 회래동 화정빈관 호텔에 여장을 풀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중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잡기장, 우리 식으로는 써커스극장으로 가서 개묘기, 코끼리묘기, 공중그네뛰기, 외줄타기, 옷바꿔입기, 접시돌리기등의 다채로운 묘기를 약 2시간동안 관람하면서 중국인들의 기예를 칭찬하였다. 호텔에 돌아와 호텔나이트를 구경하려고 잠시 일행과 들렀다. 입장료로 중국돈 100원을 요구하였으며 술과 안주값이 과연 듣던 대로 비싼편이

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내국인 보다 3배이상 비싸게 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수둘째날 14일은 일찍 홍구공원(노신공원)에 나갔다. 이 공원은 1932년 4월 29일 상해를 점령한 일본군이 일본왕의 생일과 전승 축하식을 열고 있을 때 한인애국단소속 윤봉길의사께서 도시락과 수통으로 위장된 폭탄을 단상에 던져 일본군대장 시라가와 일본거류민단장 기와바다가 즉사하고, 이밖에도 일본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가 실명하고, 주중일본공사 시게미쓰와 일본군 제9사단장 육군중장 우에다가 중상을 입었던 장소이다. 그런데 이토록 유서깊은 이 공원에는 우리 윤봉길의사의 비석이 아닌 중국의 문호 노신(1881~1936)의 묘와 비석이 서 있었다. 그래서 공원 이름도 노신공원으로 바뀌었다 한다.

이 역사의 현장에 윤봉길의사의 비를 세워 그분의 뜻을 기려야 마땅한데 중국땅이고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공원은 나무하나 꽃 한송이 사람손이 가지않은 자연상태로 보존은 하고 있으나 가꾼 흔적이 없었고, 관리자는 평상시에는 놀고 있다가 검열관이 오면 청소를 하고 하여 지저분했다. 이따금 한국 관광객들이 태극기를 들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현장에서 사진을 찍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일행도 기념촬영을 하고 공원내에 있는 기념품상점엘 가보니 정찰제가 아니고 50% 할인하고도 물건을 판매하는 상도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해중심부 남시주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인 예원을 보지 않으면 상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고들 한다. 예원은 소주의 四大公園인 청랑정, 사자림, 유원, 졸정원과 華東의 명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원래 명나라 관리였던 潘允端이 1559년 부터 1577년에 걸쳐 그의 부친 潘恩을 위해 지은 대저택이었다고 한다. 정원에 있는 10개의 연못과 30개의 누각을 좁은 복도와 오솔길을 따라가며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1851년 태평천국의 난에 호응하여 진하림이 이끄는 上海小刀會가 구성되어 청조에 반기를 들었는데 예원의 동북부에 있는 点春堂이 당시 반군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음날 상해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1시간정도 달려 水鄕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소주에 도착하였다. 이 곳 사람들의 생활은 모두 흐르는 운하와 이어져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소주운하를 작은배 2대에 분승하여 졸정원에 향해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시궁창냄새에 코를 막아야 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시멘트로 배모양을 갖추고 낡은 발동기를 부착한 배가 자갈, 모래, 적벽돌등을 운반하는 유일한 화물선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운하에서 얼굴을 씻고, 빨래도 하고 다발로 묶은 대나무그릇을 닦으며 쌀과 야채를 헹군다고 한다. 옛날에는 소주 미인을 아내로 맞아 아름

다운 정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얼굴이 고운 중국여인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우중충한 벽돌집과 잘 다듬어진 기와집들이 운하를 접하여 연이어 서있었으며 골목에는 흰벽돌 또는 적벽돌의 포석이 깔린 그런 도시일 뿐이었다. 중국의 4대 명원중 2개가 소주에 있으며 졸정원과 유원 이 두 정원은 중국소설「홍루몽」의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정원은 규모가 크고 웅장하나 정원수나 주위환경은 역시 깨끗치 못하였다. 한 산사를 둘러 보니 향나무로 법당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이 한산사는 원래 梁나라의 천감(502~517) 연감에 창건되었으며, 당나라 정관(647~672)에 기인 승려인 한산과 그의 동료인 십득이 살았다는데서 원래 "妙利普名塔院"이라는 긴 이름을 버리고 한산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승려 한산은 시인으로 3백여수의 시를 남긴 사람으로 그의 친구 십득의 화상과 함께 대웅전에 남아 있으며, 또한 이절을 찾아온 유명한 시인들이 남긴 시『寒山寺三十六道』등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공사장에 건물 위험방지막으로 왕대나무를 엮은 발을 파이프 대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감탄했다.

15일은 관광버스로 상해시의 옥불사로 향하는 도중 교통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자전거로 남녀가 통근을 하는 것과 자전거와 리어카를 합하여 삼륜자전거를 만들어 물건을 운반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스꽝 스럽게도 보였다. 시내 한가운데 안원로 170호에 있는 옥불사는 안원에서 하차하여 서쪽으로 보이는 황색

의 벽으로 둘러싸인 절로써 청대 1882년에 세워진 얼마되지 않은 불교사원으로 버마에서 운반되어 온 옥불좌상이 유명하다고 한다. 옥불좌상은 참으로 귀공자처럼 보였다. 근대 자유화 정책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건한 불교도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CJ6502 비행기로 17시 30분에 상해를 출발하여 19시 30분 심양비행장에 도착하여 봉황반점에 들어가니 상해시와는 달리 신시가지가 보이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었다. 한식요리로 식사를 하고 호텔에 여장을 풀고 잠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데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연길에서 아침비행기를 타지 못하여 7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저녁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를 듣고 내일 우리의 일정에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다.

16일 9시 전용버스로 심양시 제3조선족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심양시 교육위원회 민족교육처 강오금 처장님의 안내와 이응렬 교장선생님의 현황설명을 들었다. 이 학교는 1977년에 설립했으며 학생이 900명에 교사가 120명으로 교사 한사람당 1주일 수업시간은 12시간이고 사택이 100% 지급되며,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고, 교실에는 고급 전등이 달려 있으며, 이중창도 설치되어 있고 계단은 고급형이며 출입문에 도난방지기가 철제장치로 되어 있고, 보일러실은 석탄으로 교실마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다. 교장실은 응접실 바닥이 고급카펫트로 깔려져 있어 한국의 열악한 학교 시설과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등과 비교가 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문화교류가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한국의 교육계가 앞으로 책자등을 통하여서라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학교현황과 교육문제는 지면상 간략하게 마치겠다. 학교장의 배려로 점심식사는 용탕 특히 한국요리등으로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다.

폭우를 무릅쓰고 요녕성 실험소학교를 방문하고자 가는 길은 원래 도로가 낮은데다 도로변에 배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가지가 침수되어 마치 강물이 흐르듯 하는 도로를 헤치며 실험소학교에 도착하여 고정진 교장선생님의 현황설명과 함께 3학년 학생들이 노래와 무용, 아코디온 연주등으로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 간 한국어사전, 중한사전을 학교에,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넥타이핀을,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선물로 주고 중국제 실크스카프를 답례품으로 각각 받았다. 비가 와서 학교 천정에는 물이 스며드는 곳이 있었으며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앞문이 없이 용변을 보게 되어 있었다.

다음 요녕성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노홍덕 교육위원회 주임의 환영사와 현황설명을 들었다. 요녕성의 교육행정조직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청이 독립기관이 아니고 省소속하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대학까지 감독하고 있었다. 학제는 6.3.3.4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학교 6년제, 보통중학교(중 · 고교), 보통고등학교(대학)로 편제되어 있으며, 다른 省보다 비교적 교육사업 발전이 빠르다고 한다. 소학교 학령아동 입학율은 90%, 소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율은 92%에 달하며 중등직업기술교육, 일반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육, 성인교육등도 모두 착실하게 발전한 것 같다. 또한 각종 대학교가 63개소가 있으며 이들 대학교는 국제 학술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5개소의 대학교가 외국 유학생 양성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수는 소학교 373만 6천명, 일반 초·중교(중학교 3년제) 170만 7천명, 각종 중등직업기술학교 36만 3천명, 대학교(본과 전문과) 13만 5천명이다. 각종 성인대학, 중·고 및 초급 소학교 재학생이 36만 5천명, 각종 성인기술양성학교는 239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유치원 102만명, 정신박약아 및 장애아동의 특수교육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7,800명을 수용하고 있고, 교육의 목표는 육체, 미, 노력, 도덕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교과서는 8종이며 중앙심사된 1종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우리 위원회 의장님의 인사와 상견례를 마치고 요녕성교육위원회에서 2부순서로 장학진과 같이 사진촬영을 마치고 나서 시내 교육연구소 음식점에서 중국요리로 환영 만찬이 있었다. 만찬장에서 조선민족교육처장에게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청해 듣는 등 양국위원들이 한국노래를 합창하며 1시간 이상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끝으로 심양에 대해 소개하면 인구는 600만명으로 상해, 북경, 천진에 이은 중국의 4대 도시이며 겨울에 비행기로 심양을 갈 경우 눈앞이 흐려져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심양시 600만 시민의 난방연료가 석탄이

며 또한 심양은 동북지방의 최대 공업도시로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 등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중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300원선이며 최근에 개인농장 自由地(쯔리유띠)를 경영하는 농가가 연 1만원의 소득을 올려 自由戶(탄유엔후)가 생기기도 했지만 일반농가는 연수입이 300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여가를 즐긴다거나 관광여행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낙천적인 중국인들은 나름대로 오락을 즐기는데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가장 손쉬운 오락은 영화, 그리고 각종 지방극, 써커스 관람 정도라고 한다. 그 악명 높던 마작은 국가에서 금하는 관계로 이제 가정에서도 즐길 수 없게 되었고 중국장기 정도로 소일하는 계층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주택사정이 심각해서 한가족이 한칸의 방밖에 갖지 못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친지나 이웃과 함께 모여 즐기는 일도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 흔히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하지만 중국은 특히 인구팽창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해결마저도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넓은 대륙, 가도가도 끝없는 만주벌판, 콩밭, 옥수수 대평원을 가지고도 낙후된 농촌을 면치 못해 한국보다 30년이나 뒷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 조건이 좋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므로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면 멀지않아 한국인이 오히려 추격을 당할지도 모르니 온 국민이 더욱 분투하여 선진국대열로 나서야 할 때라 본다.

8월 17일 전용버스로 심양에 소재하고 있는 북능, 청나라 고궁

등 유적지를 돌아 보았다. 만주 최대의 도시인 심양은 요녕성의 성도로 행정문화의 중심지이며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우기도 한다. 청나라를 세운 태조 누르하치가 수도로 정하여 정치,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고궁을 비롯하여 북능, 동능등 황제의 능들이 청의 기백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궁은 북경의 자금성에 이어 두번째로 큰 궁전으로 북경의 것에 비하면 훨씬 아늑하며 토속적인 분위기가 짙다. 청 태조이후 2대황제 皇太極에 이르기까지 그 세를 떨친 곳으로 누르하치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던 현장이며 당시의 궁정생활을 보여주는 수많은 보물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어 몽고풍의 씩씩한 기상과 한족의 원숙한 문화를 동경한 만주족의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누각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봉황루로 이곳은 황제가 문무백관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풍악을 즐기던 연회장으로 그 시대의 가구와 도자기 및 악기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북능공원은 심양의 북쪽에 위치한 청나라 태종 황태극부부의 능으로 능앞에는 황색유리 기와로 된 아름다운 전각이 우뚝 솟아 있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만주족 수장의 기개가 엿보였다. 청태종은 누루하치의 네번째 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인물로 그의 형제들을 제치고 발탁되었으며, 병자호란때 조선으로 쳐들어와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항복시켰던 그는 아직도 무덤속에 살아 있는 듯이 굳게 잠겨 있었다. 청나라는 사실상 태종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의 아버지 태조의 능보다도 우람했고 우리나라 왕능과는 달리 능위는

무성한 나무로 덮여있고 갱도문이 돌문으로 잠겨 있었다. 조선족들은 매년 이 공원의 거대한 연못가에 모여서 노인절이라고 부르는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는 고궁관광을 마치고 동능을 지나 시내로 들어왔다. 동능으로 불리우는 청 태조 누르하치 부부의 능은 심양시가지 동쪽끝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거목이 우거진 숲속에 석조물이 많고, 이곳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반유목민인 만주족을 통일하고 청나라 건국을 위해 평생을 말안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훌륭한 무예를 겸비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는 그의 비문에는 "평생동안 말안장에서 정치를 한 대청국의 황제"라고 쓰여져 있었다.(다음호에 계속)

—창의, 자주, 전인교육 필요 민속관, 놀이마당 운영 —

남 사 중 학 교
교장 구 본 홍

우리 학교는 총 학급수가 7학급으로 개교한 지 29년째 되는 학교다. 벽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지만 더없이 깨끗한 주변 환경과 훌륭한 교육 시설을 갖추었고 열성어린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 나날이 변모해 가고 있는 학교다. 특히 학과 수업과 전인교육을 따로 두지 않는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으로 제자들을 친 자식이나 동생처럼 보살피며, 교내 체육대회, 합창 경연대회, 종합 예술제및 작품 전시회등 크고 작은 학교 행사는 물론 특별활동 시간의 1인1기 교육에 사제 동행되어 즐겁고 신이나는 학교다.

최근 고도의 산업사회 발전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학교 교육의 비중이 약화된 현실 속에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라는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는 재미 있는 곳,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탁상공론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책임진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아울러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풍부한 정서

와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는 전인적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미적 정서와 인간미 넘치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학교 특색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 민속관 운영 및 상설 놀이마당 그리고 도서 시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첫째 향토 민속관 운영을 통해 향토 민속 자료를 발굴 육성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조상의 얼과 숨결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함은 물론 건전한 인격자로서의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둘째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설 농악 놀이 마당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방과후 정규 클럽 활동 부서와 관계없이 전원 참여토록 하고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도록 지도하며 특기 및 취미 생활로 우리 고유의 농악 놀이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전통 놀이 문화 계승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인격 형성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 시킴은 물론 건전한 여가 놀이를 유도하여 취미 생활로 심성의 순화를 도모한다.

또한 취미 특기 지도로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고 상설 농악놀이 마당 운영으로 인성교육의 중심적 교육 활동과 자신의 능력 및 소질을 기르도록 했다.

셋째 독서의 생활화 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독서 시간을 지정 운영하며 독후감 발표 대회, 학기별 우수 독후감 및 다독자 시상을 통

해 교실의 도서실화 및 독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 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순화를 도모하고 독서 습관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의 기반을 립하며 건전한 독서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다.

남사중학교

(1) 학교연혁

1951. 1.10 남사고등공민개교
1967.12. 2 학교법인 매카피학원설립. 초대이사장 매카피선교사 취임
1968. 2. 2 남사중학교인가(3학급). 초대교장 구본흥 취임
1970.10.30 교사 준공(본관 지하1층, 지상 2층)
1975. 6.26 학교법인 동림 학원으로 명칭변경
1988.10.25 제3대 이사장 이지환 취임
1996. 2.13 제26회 졸업식(졸업생 3675명)

(2) 학교 특색사업

① 독서의 생활화 - 교내 글짓기 및 독후감 발표대회.
- 우수 독후감 및 다독자 시상
② 향토민속의 발굴 육성-향토 민속관 운영. -농악부 육성

여 백

용 구 문 단

여 백

시

七月이 오면

박 상 돈

七月이 오면 나
歲月을 덜고 일어나
무지개빛 童心속의
그 고향으로 가리

꿈따라 헤메던 숲
손수가 피어 있고
여름 밤 반딧불로
추억을 곱게 엮던

맑은 물 부신 햇살
벌거숭이 옛동무와
퇴색않는 웃음들이
못내 그리워

푸르른 시냇가
언덕에 다시 서면
연륜처럼 쌓여진
헛된 시름 씻기고

七月이 오면 나
歲月을 털고 일어나
가슴속 幼年의
그 고향으로 가리

감겨진 현실속에
세월을 되건너
해맑은 이야기들
가만히 손짓하는

공

박 상 돈

시

쏟아지는 햇살 눈부신
일요일 아침
건각의 장년들 가득한
학교 운동장에서
머리도 사지도 없는 공이
무수히 못매를 맞는다.

이마에 받치고 발에 채여도
도무지 항거할 줄 모르는 채
북으로 밀면 북으로 떠밀리고
남으로 밀면 남으로 달리는
주관이라곤 전혀없는
저무념 무상, 무욕의 경지여

사소한 억압에도 빳빳히 고개드는
하찮은 반항의 사지를 잘라내고
헛된 욕망의 덩이로 가득 채워진
무거운 가슴을 비우고 비워내면
나도 언제쯤 공처럼 가벼이
아집을 날려버린 달관에 이를까

시

농부는 화가여-

마음을 그리는 거여-
꿈을 그리는 거여-
논 갈이를 하고 물을 칠렁하니 대 놓으면
풍년을 약속 받은 듯 마음이 뿌듯하지
모내기를 해 놓으면 파랗게 크는 자식
얼마나 사랑스러 운지
장마때 주룩비를 맞으며 벼들이 웃고있는
논 두렁을 뛰면은
살아있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거여-
새싹들의 용트림
곡식들의 춤추는 모습
수수이삭 손 흔드는 반기는 모습
모든것을 담아서
희망과 사랑이 가득 들어 있는
풍년화를 만들어 가는 거여-
철 따라 환희를 만끽하면서
화가가 되는 거여-

용인문화원 이사
글. 洪 思 國

5 일 장

96 주부백일장 장원상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심 연 희

"골라~골라~ 싸게 팝니다. 어서 오세요" 좁은 시장바닥에 가지고 나온 물건을 가득 쌓아 놓은 젊은 남자가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하는 장날! 이 젊은이의 얼굴엔 부끄러움도 없고 너무도 홍겨운 그의 리드미컬한 목소리와 몸짓은 싱싱한 삶의 모습 그 자체이다.

3일, 8일은 오산의 장날이다. 용인시 남사면 소재지에 살고있지만 지역적인 관계로 우리의 생활권은 오산이다. 시골에 살고있는 나는 거의 장날마다 찬거리 준비를 위해 장에 간다. 시골버스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즐겁다. "오늘은 무엇이 많이 나왔을까? 싼물건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새 시장에 다다른다. 장터 입구부터 왁자지껄 사람들의 소리들이 모여 내는 화음 중에 최고의 혼합음이 반긴다. 각가지 나무와 꽃나무, 화초, 그 다음에 과일트럭, 핫도그 아저씨, 이불장수를 지나 채소와 생선전에 들어선다. 봄이 되었으니 오늘은 오이와 부추를 사서 오이 소배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이를 보니 보이는 오이마다 너무도 싱싱하기만 하다 장날마다 내가 찾아가는 노점상 중엔 단골이 몇분 있다. 채소류를 파

는 아줌마는 키가 작으마한 50대 되신 분으로 집이 천안이라고 하셨다.물건이 다른사람들 것보다 조금 헐해도 되도록이면 이 아줌마한테 사는게 나의 습관이 되었다. 아줌마의 얼굴에서 풍기는 시골스런 다정함과 덥석 한주먹 덤을 주시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그 이유인 것같다. 생선 아줌마는 깍쟁이같이 보이지만 마음만은 푸근한 인정이 넘치는 분이라 단골이 되었다. 장골목을 한바퀴 돌면서 내 마음은 참으로 사는것에 대한 희열을 맛보곤 한다. 장바닥의 모습이야말로 축소된 인생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게 아닐까? 이곳엔 사람 사는 따스함이 있고 반대로 고통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이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꽉메운 오가는 사람들의 행렬이다. 비좁은 거리에서 서로 부딪치며 스쳐가는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더없이 좋다. 한때 장날 시장가는 것을 피한적도 있었다. 사람들에 치여 짜증이 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수년전 교회의 일로 남편과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리엔드로라는 도시에서 1년을 살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미국의 교통수단은 자가용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서 "차는 곧 발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대형화된 마켓에 차를 몰고와 대형주차장에 주차시킨후 카트라는 장보는 손수레를 끌고가는 미국여성들의 장보기는 시골에서만 살아온 내겐 생소하기도 했고 선진국 주부들답게 사는 그들이

부럽기도 했었다. 또한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다양한 상품들도 볼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곳엔 내가 느끼고 즐길 수 있던 인정이 없었다. 백주에도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려웠고 해가 어둑해지기 시작하면 그 큰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도 걸어다니는 사람은 정말 없었다.

아니 못걸어다니게 했다. 위험하다고 최근 한국에도 동일한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사는 동안 난 너무도 외로웠다. 그리고 장거리를 돌아다니며 스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붐빔이 너무도 그리웠다. 냉이나 쑥한줌 놓고도 장사를 하셨다.우리의 할머니들도 그리웠고 내 물건이 싸고 좋다고 목청 돋구던 아저씨들도 그리웠다. 그 후 고국에 돌아온 내게 장날마다 장에 나가 사람사는 냄새를맛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되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나의 팔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산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가득차 온다. 이것이 모두 장날이라는 고유의 풍속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또 다시 내게 말한다."그래, 역시 나는 신토불이야! 장날이 있어 시골이 더욱 좋다!

수필

새벽길을 가르며

이 미 숙

조그만 베지밀 대리점을 하고 있는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길을 가르며 소비자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야 하는 직업을 가진 이유로 덜덜거리는 오토바이로 가족의 의 · 식 · 주를 책임지고 있다.
몇번이나 트럭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 보았지만 어린 저런 핑계로 아직도 오토바이다.

올래는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약간은 먼거리 였지만 배달이 들어와서 눈이 많이 내린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물건을 싣고 길을 나섰는데 오토바이가 힘이없어 그만 나동그라져 남편이 다쳤다.

남편이 하는일을 대신하게 됐다. 여자라고 남자가 하는일을 못할까보냐.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 6시부터 물건들을 정리하고 배달이 시작된다.
날씨가 추운탓인지 바람은 살을 에이는듯한 칼 바람이었고 별도 달

도 희뿌연 안개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하얀눈 내린 길을 이세상에 나혼자 남아 걸어 가는것 같았다.
손이 시려워 살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세상에 이렇게 추운데 남편은 새벽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단 말인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 꿈틀대고 있었다.
흔한 자가용 하나 못사고 못나게시리 오토바이를 용인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고 구박하고 핀잔을 주며 짜증아닌 짜증을 매일 낸적이 있다.
사실 창피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다 자가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바가지를 긁어댔다. 남편 마음 고생하는것은 조금도 생각없이 투정을 부린 자신이 사뭇 미안한 생각이든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동차들 소음들과 함께 이렇게 한겨울에 새벽은 열린다.
마주오며 뛰어가는 신문배달 하는 소년은 힘찬 하루를 위해 시작하는 것 같이 씩씩하게 눈위에 발자욱을 그리며 뛰어간다.
먼길 직장을 가기위해 리모콘 자동차가 작동을 하고있다. 삐용삐용 이쪽저쪽에서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난다.
새벽잠깨어 우는 아이 울음소리, 밤새 야근을 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 새벽시장을 보러가는 장사꾼들 등등……
아~이모든것이 인생일것이다.

꽁꽁 언 손을 어루만지면서 내얼굴을 빠안히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측은해 보인다.
넘어져 엉망진창이된 다리와 얼굴을 보니 왠지 가슴이 아려웠다.
코 끝이 찡하는 눈물은 주책없이 볼을타고 흘러내렸다.
"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눈이 오는날 넘어져 고생은 하지 않잔아요?" 힘없이 말을 건낸 나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은 위로 해 준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을 하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뭘 그런것 가지고 그래"

스며드는 겨울 바람이 오늘따라 상쾌한 느낌이든다.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용인상고 2학년
김 정 슬

고등학교 2학년이되면 누구나 그렇듯이 수학여행은 기다려지기 마련이다.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어수선하게 보내고 다음날 설악산 수학여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만했다. 설악산을 출발하기도전에 우리들은 흥분과 더불어 즐거움을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버스를타고 처음 우리가 들린 곳은 통일전망대였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다와 산들 그리고 지면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통일전망대… 산불로 인하여 검게 변해버린 산들이 그 아름다운 푸른빛을 잃어버렸고, 손을 내밀면 닿을듯한 북쪽땅과 산들은 너무나 고요했다. 버스에 내린후 통일전망대를 향해 계단을 오르며 산불의 피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며 하늘을 향해 천천히 얼굴을 내미는 작고 여린 푸른 새싹을보면서 통일의 염원을 가져보기도 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내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산 우린 잠깐의 설명을 들은 후 만원경을 통하여 북쪽산을 더욱 가깝게 볼수 있었다. 독일의 통일, 베트남의 통일, 예멘의 통일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에게도 남북한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반도의 분단으로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반세기 가까이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남북이산가족의 한일 것이다.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이산가족을 재결합시켜주고 그들의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해소시켜주기위해서 분단된 한국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한국사의 긴 역사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아주 짧았던 비극의 시대로 간주되리라 생각된다. 이런저런 생각과함께 바라본 북녘하늘과 산은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뿐 이였다. 북쪽하늘을 등진체 우린다시 버스에 올랐다. 조금 침체되었던 마음이 설악산에 도착하자 다시 흥분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머무른 모텔은 깨끗했다.

조금은 비좁은 방과 집에서 엄마가 손수해주시던 음식과는 비록 달랐지만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한 까닭에 그저 즐겁기만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드디어 흔들바위 답사를 기게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기다렸던 탓인지 일찍일어나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설악산입구에 도착후 안내원아저씨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산에오르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 싸고있는 산과 높은바위들, 봄이라 그런지 그 푸르름과 웅장함을 더욱 뽐내고 있었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산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런 이유였는지 흥분과 더불어 내 발에 차이는 돌들까지 나를 즐겁게했다. 고향에서 듣던 그런 맑은 물소리 푸른 자연들, 그들과 어울려 놀던 내 어린벗들. 거창하게 말하기 싫어하고 꾸미기 싫어하고 그저 즐거움을 만끽하기위하여 그날그날 목적없는 놀이를 해왔었다. 잠시의 휴식시간에 잠

깐의 생각에 잠겼다.

내가 어렸을때는 약한 바람에도 날아갈수 있을것 같던 내 어린몸이 이제는 너무커버린것 같다. 조금만 뛰거나 걸어도 숨이 차고만다. 어릴때는 하루종일 친구들과 뛰어놀아도 어디 아프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과 돌들을 보면서 어릴때 바위 위에서 잠든 생각이 났다.

그때 엄마는 흐르는물에 빨래를 하시고 난 그 옆 작은 바위 위에서 빨래하시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돌사이로 흐르는 물소리 햇빛을받아 반짝이는 거품들 열심히 방망이질을 하시는 엄마의 모습, 너무나 평온하고 따뜻했기에 난 잠이들었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또렷하게 생각이난다. '그런 날이 또올수 있을까?'하는 아쉬움으로 현실에 돌아온다. 틀에 박혀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정다운 벗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정상을 향해 또다시 걷는다. 조금의 인내와 불평으로 우린 정상에 도착하여 흔들바위를 보았다.

'여자가 3번을 흔들면 시집못가고 남자가 3번 흔들면 장가를 잘간다'던 안내원 아저씨의 말씀이 기억난다.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하산을 한후 오후에는 2번째 코스인 비선대를 등산했다. 흔들바위 코스보다 더욱 십고 즐거웠다. 신기하게 생긴 높은 절벽과 시원스레 흔러내리는 작은 폭포… 그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한번 자세히 보고싶어졌다. 언젠가 '도전이 있어 젊음은 아름답다 란 애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리고 흔히 사

람들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말하곤한다. 나는 이 다음에 산을 오른다면 설악산보다 더 높고 더 험한 멋진 산을 등산하고 싶어졌다. 그래도 나에게 있어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즐거움을 느꼈던 소중한 추억이였다. 마지막 날은 비로인하여 경포대와 이승복기념관 관람을 못하고 돌아온것이 아쉬웠다.

비록 짧았던 2박3일의 일정이였지만 지금도 잊혀지지않는 설악산의 풍경들과 친구들의 웃는 모습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문화학교 운영교실

개강일	교 육 과 목	요 일	시 간	대 상	강 사	
년중	한문(논어)	수	19:30-20:30	일반	장창하	
〃	메 이 크 업	〃	10:20-12:30	주부	홍윤정	
〃	노인취미교	월	14:00-16:00	노인	심영희	
〃	수 족 침	금	10:00-13:00	일반	정숙자	
〃	기러기독서	토	14:00-16:00	학생	장삼우	
〃	민요장고 교	목	10:00-12:00	일반	최연화	
6.10	주부글쓰기	월	10:00-12:00	주부	박수자	
3.28	붓 펜 강 좌	목	14:30-16:00	일반	이경희	6월 수료
5.30	대 금 강 좌	금	10:00-11:00	〃	이청훈	
			17:00-18:00	학생		
			19:00-21:00	일반		
7.25	학생한문강좌	방학중	10:00-12:00	학생	용인향	
년중	생활도예강좌	수시	수시	일반	마순관	현지에서
〃	전통예절교육	〃	〃	〃	문화원	
〃	학생문고활동	〃	〃	〃	〃	
〃	시청각 교육	〃	〃	〃	〃	
〃	향토문화강좌	〃	〃	〃	〃	
9.2	미술실기및이론	교육화	13:00-15:00	주부	이상학	3개월
3.4	꽃 꽂 이	월	11:00~16:00	〃	오민근	수료

문화원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현 직	주 소	전 화
원 장	송재권	용인문화		
부원장	홍재구	용인축협		
이 사	장익순	시의회 의		
〃	이강수	태성중학		
〃	박상돈	용인시청		
〃	성낙신	유경농장		
〃	심재선	용인유선		
〃	김석봉	경찰서선		
〃	목영희	청호인터		
〃	나광덕	신갈유선		
〃	심우인	양지신협		
〃	이인영	노동복지		
〃	김문향	용인시농		
〃	남문우	용인자동		
〃	이헌규	동남학원		
〃	최돌선	참전예술		
〃	홍사국	시장번영		
〃	이해을	파란들 대		
〃	이근화	(주)제일		
〃	장석영	군 의 원		
〃	한승욱	감정평가		
감사	이우진	용인상공		
〃	최운영	자연보호		

편 집 후 기

◑ 유일한 향토지인 용구문화지가 1984년 12월 6일자에 창간된지 올해 12년이 되었습니다.

◑ 항상 용구문화는 시민과 더불어 커가는 유일한 계간지로 발간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반년간지로 발간됨을 독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 앞으로 시민의 사랑받는 향토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 26호로 발간되는 용구문화는 원고지가 기일내에 접수되지 않아 좋은 내용을 하나라도 더 실리고저 하는 욕심으로 지연되었습니다.

◑ 독지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바라며 애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 많이 투고 바랍니다.

향토문화 연구소장 **이 응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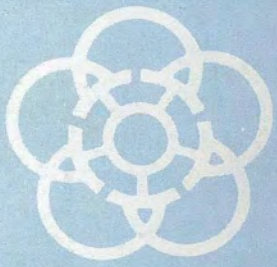
용구문화에 글을 기다립니다.

본 문화원에 계간지로 발행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財等 발굴기
2. 愛鄕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鄕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 團體等에 동정 消息等
5. 他鄕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꽁트 龍仁에 關한 사진 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용인시 김량장동 133-61

용인문화원〈전화〉 **35-2033.35-0835.33-6700**



발행인 : 송재권
편집인 : 이응준
발행소 : 용인문화원 T.35－2033,33－6700
발행일 : 1996. 8
인쇄처 : 현대인쇄소 T.35－3878
이책은 지방비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매품